

CEO 메시지



창립 51주년, 성장 and 변혁을 향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한킴벌리는 2021년 창립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안전과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이 2년째 지속된 상태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한 해의 성과와 2021년의 과제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새로운 CEO로서 책무를 맡게 되어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첫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경제·사회·환경 성과 2020년은 유한킴벌리 역사에서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970년에 창립한 이래 50주년을 맞이했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전 세계적 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이에 따라 급변했던 유통 시장 환경, 소비 패턴 변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신생아 수 감소 추세 등의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킴벌리는 고객과 사우 모두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면서,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대신에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나섰으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서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COVID-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했던 생필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보호복, 화장지 등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정용품사업에서 34%, B2B 사업 12.1%가 성장해서, 국내시장 매출액이 총 12.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내 신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와 팬츠 등을 수출해서, 수출에서도 전년 대비 13.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의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의 환경적 투자를 지속했고, 신규 기계 증설과 개조, 이커머스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 디지털화된 시장선도를 위한 정보기술 개발, 분사 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투자를 시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한킴벌리는 특히 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원과 협력회사,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라는 안전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가지 있게 생각합니다. 사원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강화된 안전 및 환경 경영 기준 수립, 초격차 품질의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했고, 공정 거래 준수와 준법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노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지로 2020년에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지속가능성지수(Korean Sustainability Index) 1위기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10회 이상 수상한 기업에게 주는 명예의 전당 헌장과 최고경영자상 수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 1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ESG를 향한 과제 유한킴벌리는 새로운 50년의 원년인 2021년을 맞이해서 “성장과 변혁의 새로운 시작! Go 21”이라는 경영 슬로건 아래 오랫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문화를 변화해 갈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의 성장 동력은 창립 이래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등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실현해왔다는 점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함께 풀며 성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도전과 변혁’이라는 가치가 더해져서,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더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킴벌리는 2021년 3월에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한다”입니다. 새 비전체계에는 ESG 경영 취지가 잘 담겨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더 가치 있는 성장과 변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첫째,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며,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에 환경경영 3.0을 선언한 이래, 우리의 꿈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과 포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제 제품에 적용하며, 제조 생산 과정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실천해온 원료의 선택, 제품 설계, 제조 및 물류와 고객서비스 전반에서의 환경경영도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 2 **둘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책임활동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매년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발달장애 여학생을 위한 ‘처음생리팬티’ 제공, 이른둥이용 초소형 기저귀와 마스크 기부 등 고객의 생활 건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하면서 가치소비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숲·환경보호 캠페인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안전 우선, 개인정보 보호, 다양성과 포용,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고객만족 등 사회 책임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 3 **셋째, E(환경)와 S(사회)를 지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는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회사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조직과 개인의 성장 역시 함께 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업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지난 50년간 유한킴벌리에 보내주신 큰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 모두가 속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COVID-19 기간동안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한킴벌리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진 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